

# 셀린 송 감독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죠”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 셀린 송 감독  
데뷔작 오스카 작품·각본 2개 후보에  
“인연이라는 것에 관해 말하는 영화”  
송 감독 아버지는 ‘넘버3’ 송능한 감독  
12살 때 캐나다 이민 간 실제 경험담

“전 이걸 미스터리 영화로 봐요.”  
셀린 송(Celine Son·36) 감독은 데뷔작 ‘패스트 라이브즈’(Past Lives)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작품은 12살 때 헤어진 소녀와 소년이 12년만에 다시 연락을 주고 받게 되고, 또 12년이 흐른 뒤 미국 뉴욕에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일개만 보면 이 작품은 로맨스 영화인 것만 같다. 물론 로맨틱한 무드가 있긴 하다. 그런데 사실 이 작품엔 남녀가 손을 맞잡는 그 흔한 장면 하나 없다. 송 감독은 ‘패스트 라이브즈’는 로맨스 영화가 아니라고 얘기한다.  
‘패스트 라이브즈’(3월6일 공개) 국내 개봉을 앞두고 한국을 찾은 송 감독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각본 2개 부문 후보에 오른 자신의 첫 번째 작품을 “미스터리 영화”라며 “결국 인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나영과 해성의 관계는 참 미스터리 하죠. 두 사람은 친구도 아니고, 전에 연인이었던 것도 아니에요. 해성과 아서도 그렇잖아요. 두 사람을 도대체 어떤 관계라고 불러야 할까요. 전 이들의 관계를 인연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패스트 라이브즈’는 송 감독이 말하는 것처럼 인연에 관해 얘기한다. 실제로 극 중에서 노라(나영)는 남편 아서에게 ‘인연’이라는 단어를 풀이한다. 12살에 만났던 두 아이가 12년 뒤에 청년이 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연결되는 것, 그 두 청년이 다시 12년이 지난 뒤에 어느 도시에서 재회하는 것,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연결된 이 끈은 전생(past lives)에 어떤 모양으로든 관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

게 된다는 게 이 영화가 말하는 인연이다. 송 감독은 “그런 게 인생이 아니냐”며 “그래서 ‘패스트 라이브즈’는 인생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다”고 했다.  
‘패스트 라이브즈’는 송 감독의 실제 경험에서 출발했다. 12살 때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 간 그는 캐나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뒤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에서 극작을 공부했다. 극작가로 뉴욕에서 살던 중 12살 때 한국에서 친하게 지낸 친구와 연락이 왔고, 그가 뉴욕에 놀러 오면서 남편과 함께 만나게 됐다는 것이다. 그때 그 경험이 이 영화에 녹아 들어가 있다.  
“친구와 남편 사이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쓰며 대화하는데, 그 자리에 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단순히 언어를 오가는 게 아니라 제게 있는 각기 다른 정체성과 각기 다른 역사를 넘나드는 느낌이었죠. 그 감정이 오래 남아서 그걸 영화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극작가였던 송 감독은 이 스토리는 연극이 아닌 영화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의 서울과 미국의 뉴욕이라는 공간이 극명하게 대비되어야 하고, 24년이라는 시간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 표현에 제약이 있는 연극에는 어울리지 않는 스토리였다는 얘기였다. 그는 “이 영화의 빌런은 24년이라는 시간과 태평양”이라고 했다. “이 이야기는 그 자체로 영화였어요. 내심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연출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절 시켜줘서 기뻐했습니다.”  
송 감독의 아버지는 ‘넘버3’(1997)를 만든 송능한 감독이다. ‘패스트 라이브즈’에서도



나영의 아버지는 유명 영화감독으로 설정돼 있다. 송 감독은 이번 영화 한국 부분을 촬영할 때 아버지가 대학에서 강의하던 시절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스테프로 함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송 감독은 “제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의 영화와 내 영화의 연출 방식이나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면서도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프리랜서 아티스트로 일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인생에 배어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제9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은 오는 10일(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다. 이 행사 참석 때문에 한국에 길게 머물지 못해 아쉽다고 한 송 감독은 오스카를 받고 싶다는 물음에 “당연히 받으면 좋다. 하지만 데뷔작으로 노미네이트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도 받으면 더 좋다”고 말했다.



## 아이유, 명실상부 ‘글로벌 스타’...티켓 매진 기록해

톱 가수 겸 배우 아이유(U·이지은)가 이제 명실상부 글로벌 스타 반열에 오를 기세다.  
9일 소속사 이담(EDAM)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에 이어 일본 요코하마·대만 타이베이·북미 6개 도시(뉴욕·애틀랜타·워싱턴 D.C·로스앤젤레스·오랜랜드·로스앤젤레스)·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여는 ‘2024 아이유 허월드 투어 콘서트(U H. E. R. WORLD TOUR CONCERT)’가 티켓 예매에서 매진을 기록했다.  
해외에서도 팬덤 ‘유에나’ 힘을 확인 중이다. 특히 대만의 경우 6일 진행된 예매에서 동시접속 숫자가 최대 70만을 찍었다. 공연 매진 후 타이베이 리포트, CTS 뉴스(NEWS), TVBS 뉴스(NEWS) 등 현지 유력 매체에서 ‘한국의 국민천후(여왕) 아이유의 티켓 매진’, ‘현지 공연도 한국처럼 실명제로 압도상(황니우) 근절’ 등 제목으로 이를 대대적으로 다뤘다. 전날 진행된 자카르타 예매 역시 동시 접속 63만을 기록해 본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여기에 북미 지역 역시 10분 만에 매진됐다. 이담은 “북미의 경우 단독 공연으로 첫 방문하는 것임에도 이 같은 쾌거를 이뤄내 글로벌에서 아이유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자랑했다.  
아이유는 이번 월드투어에서 18개 도시를 돈다. 향후 티켓 예매 일정으로 오사카가 8일부터 17일까지 2차 선행예매 실시, 싱가포르가 오는 15일 진행된다. 홍콩,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런던, 베를린, 방콕 상세 예매 정보는 순차 오픈 될 예정이다.



## 호원엔터테인먼트, 혼성 그룹 ‘지플린’ 앨범 발매

전북자치도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지방대학성과 사업의 일환으로 혼성 K-POP 그룹 ‘Zipline(지플린)’을 자체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호원대에 따르면, 지난달 예술대학 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 등을 마무리하고 호원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호원엔터테인먼트의 1호 그룹인 지플린은 지난 4일 음원발매를 시작해, 신인생 환영식 공연에서 최초로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이 뮤직비디오는 각종 포털과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지플린은 비행선을 타고 꿈과 가치를 찾아 모험을 떠나듯,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뚝고 헤쳐 나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멤버는 박재현, 이주영, 황준, 고윤설, 박채원 5명으로 이들은 호원대 K-POP학부 재학생들이다.  
지플린은 호원대 예술대학 학생들의 융합작품으로, 신인아 예술대학장(백마마 리더)의 지휘 아래 멤버뿐만 아니라 작곡, 작사, 편곡, 자켓 디자인, 스텝 모두 예술대 학생들이 참여해 탄생시켰다.

##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미니 6집 발매 앞두고 이색 프로모션

‘미니소드 3: 투모로우’ 내달 1일 발매 예정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가 이색 프로모션으로 2세대(1997년~2012년) 출생 감성을 정조준한다. 9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투모로우

바이투게더는 이날부터 13일까지 ‘투모로우 위크(TOMORROW WEEK)’를 연다. 미니 6집 ‘미니소드 3: 투모로우(minisode 3: TOMORROW)’ 발매를 기념한 것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본인 SNS(소셜 미디어)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위버스(Weverse) 커뮤니티에 ‘미니소드 3: 투모로우’를 기다리는 일상을 담은 이미지나 영상을 해시태그 #TOMORROW\_is\_Coming과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오프라인에서는 2세대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은 ‘즉석 인화’를 활용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오는 13일까지 매일 오전0시 팀 공식 SNS에 공개되는 인쇄 코드를 전국에 설치된 1200여대의 프린팅박스 기기에 입력하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미공개 사진을 만날 수 있다. 뉴스



## 김고은 흥행 멈추지 않네 ‘파묘’ 800만 돌파 목전

‘MZ 무당’ 역의 김고은을 비롯한 배우들이 호연이 돋보이는 영화 ‘파묘’의 흥행 국판이 멈추지 않고 있다.  
10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극장에 걸린 ‘파묘’는 개봉 17일째인 전날에만 전국 2164개 스크린에서 9143번 상영하며 55만9689명을 끌어모았다.  
누적관객수는 756만9682명이다. 이르면 이날 800만명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배우들이 무대 인사를 여전히 적극적으로 돌고 있어 1000만 관객 돌파도 예상된다.  
‘파묘’는 ‘검은 사제들’(2015) ‘사바하’(2019) 등 ‘오컬트 장인’ 장재현 감독 신작이다. 거액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해 화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무당 화림과 봉길이가 이 작업을 풍수사 상덕과 장의사 영근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하고, 네 사람이 이 묘를 파헤친 뒤 기이한 일에 직면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최민식이 상덕을 연기했다. 김고은이 화림, 이도현이 봉길, 유해진이 영근을 맡았다.

## 대세 보이그룹 스트레이 키즈 ‘거미줄’도 넘겨

K팝 대세 보이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스키즈)의 히트곡 ‘거미줄’ 뮤직비디오가 1억뷰를 넘겼다.  
10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스트레이 키즈가 2022년 3월18일 발매한 미니 앨범 ‘오디너리(ODDINARY)’의 수록곡 ‘거미줄’ 뮤직비디오가 전날 오전 7시께 유튜브 조회 수 1억 건을 달성했다.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신메뉴(神메뉴)’를 비롯 이번 ‘거미줄’까지 총 14편의 역대 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됐다. ‘K팝 4세대 보이 그룹 중 1억 뷰 이상 무비 최다 보유’ 타이틀을 단단히 굳혔다.  
‘거미줄’은 스트레이 키즈의 미국 빌보드 메

인 차트 ‘빌보드 200’ 첫 진입과 1위를 동시에 이룬 ‘오디너리’ 대표곡 중 하나다.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상대방이 가진 치명적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뮤직비디오는 약기 사운드와 멤버들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조화를 이뤘다.  
‘K팝 대세’ 스트레이 키즈의 파죽지세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의 2023년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Global Artist Chart) 3위, ‘글로벌 앨범 차트’(Global Album Chart) 2위, 9위를 차지하며 K팝 4세대 그룹 기준 최고 성적을 썼다. ‘빌보드 K팝 아티스트 100’ 차트에서는 K팝 4세대 그룹 중 유일하게 멤버 전원이 톱 10 반열에 올랐다.

